

한국품질경영학회

회원사 동향

기업부문

2019.06



# Index

1. LG전자(주) .....	1
2. SK하이닉스(주) .....	1
3. (주)LG화학 .....	2
4. (주)에이텍 .....	2

## 1. LG전자(주)

- LG전자 주방가전, 호주서 소비자평가 1위...'최고 브랜드' 호평

LG전자가 호주에서 주방가전 분야 최고 브랜드로 선정되며 호평을 받고 있다.

LG전자는 호주 유력 소비자잡지 '초이스'가 LG전자 프렌치도어 냉장고(모델명, GF-L570PL)를 소비자평가 1위와 함께 추천 제품에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초이스 소비자평가는 전문가들이 엄격한 제품 테스트를 통해 평가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 상냉장·하냉동 냉장고(GB-450UPLX), 양문형 냉장고(GS-B680PL)도 종류별 평가에서 모두 1위에 오르며 추천 제품에 선정됐다. 특히 프렌치도어 냉장고와 상냉장·하냉동 냉장고는 글로벌 가전업체들이 호주에서 판매하는 전체 냉장고 67종 가운데 가장 높은 83점을 받았다.

평가단은 LG전자 프렌치도어 냉장고의 온도 유지, 낮은 소음, 신선도 유지 성능 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LG전자 주방가전, 호주서 소비자평가 1위...'최고 브랜드' 호평", 2019/06/28

링크: <http://www.fnnews.com/news/201906280916126583>

## 2. SK하이닉스(주)

- SK하이닉스, 업계 최초 128단 4D 낸드 양산...하반기 판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128단 1Tb(테라비트)급의 TLC(트리플 레벨 셀) 4D 낸드플래시의 개발 및 양산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96단 4D 낸드 개발 이후 8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던 낸드플래시 시장에 신제품을 내놓은 것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꺾이고 미국 마이크론 등 주요 업체들이 감산에 나선 가운데 기술력을 앞세워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7~12월)에 양산하는 128단 1Tb급 낸드는 단위 면적당 가장 높게 쌓은 낸드 셀(Cell)이 3600억 개 이상 집적돼 있다. 낸드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TLC 제품 중 1Tb급의 제품을 내놓은 것은 SK하이닉스가 처음이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현재 대다수인 256GB(기가바이트), 512GB인 스마트폰의 용량이 2TB(테라바이트)로 커질 수 있게 된다. 고집적 낸드로 낸드 개수를 줄였기 때문에 소비전력이 낮아지고 스마트폰의 두께도 더 얇아지게 된다.

출처: 동아일보, SK하이닉스, '128단 4D 낸드' 세계 첫 양산... "기술로 불황 돌파", 2019/06/27

링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26/96203998/1>

### 3. (주)LG화학

- LG화학, 美보스턴에 바이오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 오픈

LG화학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 개소식을 했다고 4일 밝혔다. LG화학은 세계 최대 바이오 시장인 미국에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를 열고 글로벌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는 임상개발, 중개의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보스턴 바이오 인프라를 활용한 혁신기술 도입 및 글로벌 신약개발 교두보 역할을 맡게 된다.

LG화학이 보스턴에 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된 것은 보스턴이 미국 바이오 클러스터로 풍부한 현지 전문 인력과 바이오 벤처 및 연구기관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LG화학은 이러한 바이오 인프라를 활용해 자체 개발 및 외부 도입 신약과제의 글로벌 상업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조선비즈, “LG화학, 美보스턴에 바이오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 오픈”, 2019/06/04

링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4/2019060400909.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4/2019060400909.html)

### 4. (주)에이텍

- 에이텍 컴퓨터, 조달청 우수 물품 제도 사상 첫 S등급

중소 PC업체 에이텍은 자사 데스크톱 컴퓨터와 일체형 컴퓨터가 조달청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지정 제도에서 S등급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 전 분야를 통틀어 S등급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에이텍이 최근 강화한 전사적 품질강화 시스템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에이텍은 이전 평가였던 2017년 6월 30일엔 A등급을 받은 후 철저한 품질 관리 체계를 업그레이드해 2년 만에 S등급을 받았다.

에이텍의 철저한 전사적 품질 혁신 활동이 관심을 끈다. 에이텍은 검사 경험이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PDCA(Plan-Do-Check-Action) 기반 품질 개선 프로세스를 완전히 확립했다. 이를 모든 부서에 내재화시켰다.

자동화 기능을 높인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 체계적인 품질 정보 시스템을 구현한 것도 큰 몫을 했다. 자동화율을 지속 높여 품질 혁신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출처: 전자신문, ‘에이텍 컴퓨터, 조달청 우수 물품 제도 사상 첫 S등급’, 2019/06/30

링크: <http://www.etnews.com/20190628000227>